

일자리 88% ‘中企人’의 행사… 文, 이번엔 참석하나

중기인대회, 대통령 참석 여부 관심 상징적 행사 함께하는 효과 클 것 “정부 지원 더해 청년들에 희망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중기인대회)에 처음으로 올해 자리를 함께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자리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격려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참석을 중소기업계가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89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진행했던 행사를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 아예 2011년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에 공식적으로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지정했다.

통상 이 기간 사이에 열렸던 중기인 대회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에게 훈장 등 포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로 관련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들을 초청, 오찬이나 만찬을 하며 격려했었다.

1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청와대와 중기인대회를 놓고 문 대통령의 참석 여부 등을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 정부의 경우 각종 공식행사를 기존의 형식과 내용, 장소 등에서 과감히 탈피해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어 중기중앙회가 청와대의 입맛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대통령 참석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일정에 맞춰 중기인대회는 5월 셋째 주에 예정된 중기주간행사와는 별도로

치러질 수도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진행한 지난 두 번의 중기인대회에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다.

2017년 당시에는 탄핵과 조기 대선, 정부 출범 등 정치 일정 때문에 중기인대회가 5월이 아닌 12월 중순으로 밀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기인대회는 당초 참석자가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다시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 바뀌며 결국 장관급 행사로 치러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도 남북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이 4~5월에 집중되는 등 외교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참석,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었다.

이처럼 중기인대회가 현 정부들어 2년째 대통령 불참속에 진행된 터여서 중소기업계 내부에선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참석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복수의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 문제로 옮겨지고 있는 만큼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 대통령께서 나타나실 때도 됐다”는 말로 분위기를 대신 전했다.

특히 현 정부가 가장 화두로 삼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해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통령이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행사에 자리를 함께하는 게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청년 스마트일자리 프로젝트 선포식’에 참석,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약 2000개 일자리가 줄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16만개 일자리가 늘었다”면서 “중소기업계의 의욕적인 운동과 정부의 지원이 합쳐진다면 중소기업에 희망이 되

고 청년들께도 희망을 드리는 일거양득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게다가 중기인대회를 포함한 중소기업주간은 올해 30회째를 맞는다. 여건이 여의치않아 문 대통령이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지만 ‘30주년’이란 상징성도 문 대통령의 발걸음을 잡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또 전임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취임 첫 해여서 업계 최대 행사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더욱 바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충북 출신 기업인인 김기문 회장과 역시 충북 출신 정치인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조’도 관전포인트다.

김 회장은 앞서 내달 예정인 중소기업주간 행사에 대해 “올해는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지원기관이 공동으로 130건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聯 ‘K.tag’, 봄맞이 활성화 이벤트

SNS 현판인증 사진·동영상 업로드 발전방향 등 남기면 특별상품 추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케이태그)’ 활성화를 위해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회는 공동 브랜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노무, 세무, 경영, 홍보 등 각 분야의 상담 등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의지에서 지난해 연말 K.tag를 론칭한 바 있다.

이번 이벤트는 음식점 등 전국 100여 곳의 K.tag 인증 업체를 찾아 K.tag 현판이나 엑스배너 앞에서 업체 대표와 함께 인증샷이나 인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것으로 본인의 SNS 계정에 ‘#소상공인공동브랜드’, ‘#Ktag’, ‘#소상공인연합회’ 해시태그와 함께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업로드하면 된다.

이를 올린 후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연합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방문, ‘이벤트 참여’ 코너에 본



인의 이름과 연락처,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에 대한 SNS 링크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또, 이벤트 참여란에 방문한 업체에 대한 발전 방향 또는 희망사항을 적어 관련 이메일이나 이벤트 응모란에 남기면 미스코리아 5명이 직접 추첨, 특별상품도 추가로 증정한다.

추첨을 통해 1등 2명에게는 애플 아이패드, 2등 2명에게는 위닉스 공기청정기, 3등 50명에게는 5000원 상당의 커피전문점 상품권, 특별상 5명에게는 미스코리아 시그니처 고급수제비누 세트를 부상으로 준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2019년 5월 10일 저녁 소상공인연합회 페이스북에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한다.

/김승호 기자

휴먼쇼핑 산불피해 강원도에 성금 2000만원

휴먼쇼핑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산불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휴먼쇼핑은 지난 2017년에도 전

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포항지역 지진 피해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에 후원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과 소외 계층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소상공인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

소비 트렌드 대응... 다양한 지원책 교육·상담부터 홈쇼핑 마케팅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TV홈쇼핑 입점 지원과 홈쇼핑 마케팅 홍보 지원 등 판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온라인 매출 상승에 발맞춰 온라인시장 등에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한다.

최근 ICT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모바일, TV로 상품을 비교하고 간편하게 구매하는 소비가 확산돼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20%에서 2017년 28.7%로 12년 사이에 8.7% 포인트 늘었다. 이에 온라인 매출도 2015년 54조 1000억원에서 2018년 111조 9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중기부는 온라인시장 진출이 처음인 소상공인을 위해 교육과 상담뿐만 아니

〈지원사업 총괄 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한도	사업규모
홈쇼핑 진출교육 및 상품보완	온라인시장 진출 희망 소상공인	진출교육 1000명, 상품보완 30개사 (업체당 5백만원)	3.1억원
소상공인 제품홍보	판로채널별 입점 지원 소상공인	70개사 (업체당 4.5~20백만원)	5억원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일반소비자 구매 가능	400개사, 기획전 25회	4억원
T-커머스 입점지원	B2C품목 취급	100개사 (업체당 15백만원)	16억원
TV홈쇼핑 입점지원	소상공인	100개사 (업체당 15백만원)	16억원
정책매장/면세점 입점지원	소상공인	50개사	1.5억원
1인방송 아카데미 운영	소상공인 및 1인 크리에이터	200명	4억원
V-커머스 활용지원	일반소비자 구매가능	300개사 (업체당 2~4백만원)	12억원
해외온라인 입점지원	B2C품목 취급 소상공인	50개사 (업체당 10백만원)	5억원

라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등 판로 채널 입점 지원부터 1인 방송 동영상 등을 보여 상품을 구매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

시몬스, 경기 이천시와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힘모아

시몬스는 경기 이천시와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몬스침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천시 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시몬스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몬스 침대는 자체 생산시설 및 수면연구 R&D 센터 등이 자리한 한국 시몬스의 심장부인 ‘시몬스 팩토리움’과 복합문화공간 ‘시몬스테라스’가 위치한 이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시몬스침대는 이번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외에도 이천시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